



신년사



이사장 오종설 목사

이 새로운 희망의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둡고 지루한 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2021년도였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면 시원하게 뚫린 대로가 열리기를 기대하듯이 새로운 희망의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마다 찬양과 기도로서 감동의 시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가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이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긍정적이며,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가히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현실 앞에서 급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대하시며, 정확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이 많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신뢰하여 한 걸음씩 가나안을 향할 때, 어떤 환경과 대적 앞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며, 동행해 주셨습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길에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회복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은 결국 모든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따라갈 것은 주님 한분이시며, 주신 말씀뿐입니다.

2022년도 어떠한 난관도 우리의 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경은 더 큰 은총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모든 분야가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우리 주님만은 확실하시며, 평강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저스타임즈(JTNTV)는 구독자 여러분 곁에 함께 있어 온결진 잣대로 판단하여 좋은 소식과 진리의 말씀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독자 여러분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신문방송인 언론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 위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사장 오종설 목사 외 임직원 일동 두 손을 모아 새해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사



편집인 정기남 목사

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 TV 및 지저스타임즈를 애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언에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거나 아직도 그 공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불안과 절망감 속에 마음까지도 공허 남아버린 듯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국교회의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까지도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2022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섭시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역병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기를 내가 보리이다" (시 118:7-10) 아멘.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 124:2-3) 아멘.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 124:2-3) 아멘.

신년사



사장 소진우 목사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지저스타임즈 신문과 인터넷 cjtn tv & cpj tv를 구독해 주시는 애정자 여러분과 전국에 계신 지저스타임즈 이사진, 기자 여러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 맺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

여 심었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갈 6:7-8).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삽시다! 2022년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전쟁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난리의 소문은 끊어지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귀인(사회적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시 146:3)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모든 역병과 고난도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의 힘을 갖고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2년은 극복하는 한 해로 (시 91:5-6)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 오늘의 명언 *

나는 열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 찰스 스펄전

I would rather teach one man to pray than ten men to preach. - Charles Spurgeon

우리는 벼랑 끝에 놓여있는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가르치고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졌을 때 기도의 한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3년 반의 기근이 종식되고 하늘 문이 열리어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위기를 넘나들며 기도를 배웠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축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신년하례회 공고

총 회 장



김현수 목사
꿈너머꿈교회

주제 :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웨신총회" (로 8:28)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총 무	서 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 계	부 회 계
양득심 목사 새생명교회	임애성 목사 반열교회	김복래 목사 공과요양교회	이병만 목사 원주중앙교회	이영선 목사 하늘성교회	이정구 목사 예수누리교회	김미라 목사 주산양교회	하승우 목사 더열교회	최선녀 목사 소망교회

장 소

일시 : 2022년 1월 11일 (화) 오전 11시

장소 : 꿈너머꿈교회(총회장 김현수 목사 시무)

주수 : 경기도 화성시 시동탄면 61번길 25

(총회장 김현수 목사(박사) 010-7667-4719 / 총무 김복래 목사 010-9852-3927)

대상 : 웨신총회 회원 (단, 코로나-19, 상황고려 백신접종 2차 이상 완료자)

직전 총회장



박정균 목사
대전번성교회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302호)

☎(02)835-2606-7 Fax (02)835-2608 http://ws21.org

한교연, 2022년 신년메시지



송태섭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 찬 새해 아침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고 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전 세계는 2년째 코로나19 팬데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더욱 예측불허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단한 믿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운 것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책망이 더 두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통제당하는 현실에 순응한 것이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통회자복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어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한 세기에 이룩한 부흥,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만과 태만이 그 은혜의 가치와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기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서로의 장벽을 헐고 하나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해엔 진지한 대화와 모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지 못했기 때문이었지만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성숙에 이르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하는 수와 양에 있지 않습니다. 교단의 크고 작음으로 그 뜻과 의미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무엇이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따지기에 전에 왜 무엇 때문에 나뉘고 갈라졌는가에 대한 자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앞세우기 전에 나 아니면 안된다는 자만심이 앞서지 않았는가 서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한국교회에 부과된 중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뤄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주민자치기본법, 낙태법 등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적 악법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적 시도에 대해 6만여 한국교회와 1천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대통령 선거와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올해 우리 국민 모두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만이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나눠 찢고, 진영 대결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위기, 코로나19 방역의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불공정을 막을 기회가 나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은 통치자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고 국민으로 선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선거 때만 국민에게 머리 숙이고 당선되고 나면 오만과 독선으로 돌변하는 게 오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아우르고 포용하는 정치,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인물, 국민 가슴에 상처를 어루만질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 부조화와 불평등과 결합해서도, 수수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나도, 교회도 변할 수 없음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로만이 아닌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민6:24~26)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2년 복된 새해 아침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 1. 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국경찰청·경목총회 신년사 15만 3000명 경찰직원과 그 가족 60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홍희정 이창식 목사
한국경찰청 경목총회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에서 수고하시는 경찰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찰 여러분의 주야로 많은 수고와 협조가 있었기에 한국은 무엇보다도 평안한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했

습니다.

제22대 경찰청장으로 임직한 김창통 청장과 전국에 15만 3000명의 경찰 직원과 그 가족 60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경찰청, 한국경목총회 임직원 모두는 2022년 새해에도 경찰직원 가족 여러분이 2022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해에 김창통 청장의 취임사에서 가장 안전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안전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만들겠다는 그 표어가 올 한해도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미쳐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전국 18개 지방청과 254개 경찰서, 1530여 명이 한마음이 되어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더욱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치안이 될 것을 믿습니다.

2022년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바라는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경찰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경목들, 지방청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과 새해에도 많은 좋은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성경 히 12: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신 10:12).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수 24:14).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정영 섬기로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수 24:21, 24)고 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데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1)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신 10: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셨다. 시 138:1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고 했다. 딤후 1:3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했다. 대상 28:9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이다”. 습 3:9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대상 29:19 “정성된 마음으로”. 대상 29:9 “성심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

2)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이다.

수 24:14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 삼상 12:24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고 말씀하셨다. 행 20:19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신다.

3)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다.

신 10: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셨다. 행 26:7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롬 12:11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다. 행 20:19 “겸손한 성품으로 섬기라”고 말씀한다. 할렐루야!

4)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기쁘시게 섬기라

히 12:28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하였다. 대상 28:9에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이다”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대상 29:17절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했다.

5)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물질을 드려 섬기라

눅 8:3절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되라”고 했다. 고후 9: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였다. 대상 29:17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그랬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심의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오종철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양분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ipress@hanmail.net / jtntvcj@naver.com

▶팩스 :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 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갈 때 새해에 성공이 있을것입니다



박영호 목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
협의회 대표회장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지나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

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수 3:5)고 했습니다.

여기 성결은 영적인 청결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언약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일, 아니 새해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성결케 함으로 준비합시다. 우리 성도는 새해에 조심하라, 경성하라, 준비하

라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갈 때 새해에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밝을 것입니다. 새해 가는 길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강이 있어도 육지같이 건널 수 있으며, 여러고와 같은 성이 있어도 무너질 것입니다. 강한 원수들이 있어도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화를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새해에 이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자신 있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언약의 말씀을 좇아가며 감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새해의 길이 크게 축복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 2022년 근하신년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예배 시간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일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과점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 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교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김창숙 목사)



세계로 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아직도 장례비용 선불로 내고 계십니까?

필요한 품목만 정하는 선택형 서비스

01. 단순장례식 120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 ➔ 화장시 : 목함 매장시 : 횡대

02. 3일장 기본장례식 185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영좌설치 : 빈소용품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 ➔ 화장시 : 횡대봉인함 매장시 : 횡대

03. 3일장 고급장례식 220만원

- ➔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 ➔ 영좌설치 : 빈소용품
- ➔ 고인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 ➔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 ➔ 고급리무진 and 장의버스 제공
- ➔ 화장시 : 횡대봉인함 매장시 : 횡대

1644-2542/010-3788-1130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통



상담목사 박영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향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성경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 회복하고 차별금지법 등 악법 철폐에 총력 기울이자”다짐



송태섭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지난 1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대천교회에서 2022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악법 철폐에 앞장서는 한해가 될 것을 굳게 다짐했다. 한교연 신임원과 위원장을 비롯해 47개 교단과 23개 단체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신년하례예배는 원종문 목사(상임회장)의 인도로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부른 뒤 김효중 목사(상임회장)가 기도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순서에선 정광식 목사(공동회장)가 '대한민국의 안정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김태곤 목사(공동회장)가 '민족복음화와 자유 평화통일을 위하여',

장시환 목사(공동회장)가 '코로나19 종식과 차별금지법 등 악법철폐를 위하여', 신광준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적회복을 위하여', 박만진 목사(공동회장)가 '분회 및 화원교단 단체의 결속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어 이영한 장로(회계)의 성경봉독, 윤석진 목사(공연예수위원장)의 특송에 이어 권정희 목사(영예회장)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롬 16:17-2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정희 목사는 설교에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 한 성전과 몸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된 교회는 규모가 아닌 하나 됨에 있다"며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분쟁을 깨뜨리는 거짓 선생을 경계하고 있다. 비윤리적이거나 비기독교적 규범을 가르치는 자들도 잘 분별해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 스승들은 교회 분쟁을 유발시키니 떠나라"고 한 말씀을 언급하며 "한국교회는

올바른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교회 연합을 이뤄 하나 됨을 지향해야 한다"며 "지금 한국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부요함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데 하나 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본다"며 "법 교단적으로 연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막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자"고 역설했다.

1부 예배는 김훈 장로(기회홍보실장)의 광고에 이어 다 같이 송영 5장 '이 천지 만물들이'를 부르며, 정서영 목사(증경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김학필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신년축하 및 하례는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와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 김효중 목사 김학필 목사가 나란히 단상에 서서 참석자들에게 머리 숙여 신년인사를 한 후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신년인사 말을 전하고 임원·상임 및 특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송태섭 목사는 인사말에서 "한교연은 교회 본질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나라 사랑, 그리고 정치성을 회복시키는데 노력하면서 정부의 악법 제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면서 교단 상호 간 차별 없이 소통을 원활히 하는 아름다운 연합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천교회에 소속된 예장 순장 총회장 서정환 목사가 교단과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홍정자 목사(서기)가 2022년 신년메

시지를 낭독했다. 한교연은 신년메시지에서 "한국교회가 지난 한 세기에 이룩한 부흥·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다. 그러나 영적인 자만과 태만이 그 은혜의 가치와 의미를 퇴색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기회"라며 올해 중차대한 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주민자치기본법, 낙태법 등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적 악법에 대응하는 일"을 꼽았다. 한교연은 이에 대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치적 시도에 대해 6만여 한국교회와 1천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선과 전국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해 "올해 우리 국민 모두는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올바른 선택만이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나눠 줌, 진영 대결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를 막을 수 있다"며 "정치·경제·외교·안보의 위기, 코로나 19 방역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불경정을 막을 기회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아우르고 포용하는 정치,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공정과 정의의 바로 세울 인물, 국민 가슴에 상처를 어루만질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지혜롭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귀수 목사(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참석자들이 서로 신년인사를 나눴으며 기념촬영을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한기총, 2022년 시무예배로 시작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4일(화) 오전 11시 한기총 사무실에서 2022년 시무예배로 시작했다.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시무예배에는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시무사를 하고, 실사위원장 김상진 목사가 기도하고, 총무 한정수 목사가 에스라 7장 9-10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한정수 총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우

리 삶에도 억압과 죄악의 바벨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을 떠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에스라가 여호와와 함께 연구하고, 가르친 것처럼 목회자로서 늘 말씀에 천착하고 성도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시무사를 통해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기총과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고, 지난 8월부터 논의와 합의를 거듭해온 기관통합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리위원장 이병순 목사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이용운 목사가 각각 격려사를 전하고, 서기 황덕광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개혁총회, '2022년 신년하례예배' 드려



조경삼 총회장
개혁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총회장 조경삼 목사)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예원교회(당회장 정은주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

졌다. 이날 신년하례예배는 총회임원, 증경총회장, 전국장로회 임원 및 여전도회 임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예배는 부총회장 김은복 목사의 인도로 은혜가운데 진행되었다.

예배순서로 장로부총회장 이철수 장로가 기도하고, 서기 이명복 목사가 요한 삼서1장1절-4절 말씀을 성경봉독하였다. 이어 총회장 조경삼 목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한 기원'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경삼 총회장은 영혼이 잠들같이 영적상태가 최상의 위치에 있기를 바라고 네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를 받는 것처럼 범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원했다. 또한 복음 안에 있을수록 영적상태가 잠들같이 육신적 상태가 잘되는 것 역시 성경의 역사속 인물처럼 당당한 축복임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19 펜데믹 속에서도 우리총회는 코로나19 감염 없이 오히려 성장한 것에 감사사를 전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순서로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교회에 초대교회 입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것을 간구했다. 증경총회장 최정웅 목사는 '개혁총회를 위해 기도하며 오직 전도하며 237나라 살리는 선교하는 총회가 되길 기도했다.'

증경총회장 서금석 목사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와 훈련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협회가 오직복음만을 전하며 237나라와 5천종족 복음화에 매진할 것을 기도했다.

증경총회장 정학재 목사는 '한국교회와 한기총 위해'를 위해 기도하며 한국교회의 본질회복과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이어 권면을 맡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이사장 류광수 목사는 "앞으로 4찬 산업시대, 비대면 시대, 영적 질병시대가 도래하기에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을 반드시 3캠프 기도캠프, 미래캠프, 달란트 캠프해야 한다"며 그리고 교회강단의 현장중심, 중직자의 현장중심, 부교역자 캠프 현장중심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 중요한 제자가 있다며 제자 찾아 세우는 70지역운동을 역설했다.

이어 축사를 증경 총회장 정은주 목사는 "다작한 복음운동 하는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며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가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이어 직전총회장 김승수 목사 축도하며 예배를 마쳤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지형은 총회장, 2022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지형은 총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인 지형은 목사가 6일 오후 3시 성락성결교회에서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지형은 총회장은 지구의 환경문제, 교회가 세상을 바라

봐야 하는 시각,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교회 연합기관,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전했다. 지형은 총회장은 먼저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 "인류라는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은 지구 하나인데 이제까지 너무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존재 방식으로 살아왔고 이에 따라 기후 위기 같은 위기들이 생겼다."고 전하며 "하나의 생명 공동체인 지구 행성에서 환경 및 동식물과 한 덩어리로 어울어져 살아야 한다"

며 지구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 총회장은 성경의 일반 계시의 가치에서 ▲인도적 인륜도덕 ▲생태적 환경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전하며 "현재 우리 사회는 부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속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법치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에 대한 과제를 갖고있다"며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전하며 "현실적인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 더불어 사는 문제인 '정치'에 있어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지 총회장은 오는 3월에 있을 대선에 대해서 "교회 및 성경 안에는 보수적 진보적 세계관이 둘 다 있고 교회는 고대 기독교 시대부터 세상의 어머니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전하며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 근거해 교회는 어떤 특정 집단을

편지지 말아야 하고 목회자나 직책을 맡은 사람은 공교회성을 지켜야 한다"며 교회가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교총의 구조변화 대해서 지 총회장은 한교총이 3인의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임기가 '단임'에서 '연임 불가'로 개정이 된 것에 대해 "대표를 '단임'에서 '연임 불가'로 바꾼 것은 '중임'에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변경의 방향이 되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고, "류영모 목사가 1인 대표가 된 것에 감사하지만 제5차 지도부가 어떻게 1년을 끌어가느냐가 한교총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한교총 제5차 지도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지 총회장은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세 연합기관 통합에 대해서 "연합기관의 통합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으며 그 철학 방향이 염려가 되며 걱정이 된다"고 전하며 "코로나를 겪으며 정부에 대해서 기

독교 연합기관이 힘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해하지만 연합기관이 통합되어 하나의 목소리가 될 필요는 없으며 연합기관은 품위 있게 공적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해야 한다"며 연합기관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 총회장은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현재 코로나, 기후 위기, 대선, 사회 갈등 등 여러 문제 속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하며 "기독교 역사 속 더 신뢰를 잃고 타락한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거듭 개혁하며 갱신했다."고 전하며 교회들은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2022년 ▲비대면 모임 증가 ▲교단의 정체성을 세우는 다큐멘터리 제작 ▲'동네세메출성경' 출간 ▲우목세미나 115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교회의 나침반 뉴스파워 김현성 기자

축

한국기독교 장로회

『홍성제일장로교회』

2022년 신년 축복 성회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 밤, 수요일 밤
예배 저녁 7:30분
홍성, 내포 성전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예배 시간 동일함.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홍성성전 : 17일(월)~19일(수)
저녁 7:30, 낮 11시, 새벽 5시
충남 홍성군 홍성을 옥암리 952번지
Tel.041-634-0441

내포성전 : 10일(월)~12일(수)
저녁 7:30, 낮 11시, 새벽 5:30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리51 Tel.041-631-9146

**CJTN TV
CPJ TV 방송
이사장**

당임목사 오종설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리51(Tel.041-631-9146)
교회카페 <http://cate.daum.net/ssaxp>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靑松 건강칼럼(831)... Cholesterol Day

코로나 팬데믹 3년차... 검은 호랑이의 해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靑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2022년 임인년(壬寅年) 호랑이의 해가 힘차게 솟아올랐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의로운 이를 수호하고 잡귀를 물리치는 영물(靈物)로 여겨왔다. 조선 시대 임금은 신하에게 새해를 맞아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길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세화(歲畵, 새해 그림)를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다. 호랑이는 용(龍)과 함께 세화로 자주 그려졌다.

종교 지도자들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화합과 희망, 사랑과 자비,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기원했다. 정순택 전주교 서울대교구장은 “새 해에는 지난 2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초유의 팬데믹을 경험하며 개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과 개인들의 연대가 중요함을 우리 모두 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 특히 지도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국민들도 각자의 소명을 깊이 깨닫고 변화하고 실천할 때 우리 사회는 그만큼 더 밝아지고 희망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호(虎), 호랑, 호랑이는 1만2천년 전부터 한반도에 살았다고 한다. 호랑이는 단군신화(檀君神話)부터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mascot)까지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호랑이 해인 임인년을 맞아 유통업계는 호랑이가 새겨진 골드바, 골프공, 완구, 아동복 등 호랑이 캐릭터(character)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신년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호랑이는 칼자루를 상징하여 호랑이띠에 호랑이 시(寅時, 새벽 3-5시)에 태어난 사람은 독립적이고 보스 기질이 강하다. ‘호랑이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속담과 같이 호

랑이는 구차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동물이다. 또한 호랑이는 ‘범 가는 데 바람 간다’는 말처럼 바람과 함께 달리는 날랜 존재이다. ‘범 잡는 포수(砲手)’란 위세가 당당한 인물을 비유하는 말이다.

새해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처음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지구촌의 사투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부터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omicron) 변이가 퍼지고 있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델타 바이러스 팬데믹(대유행)이 잡히기도 전에 오미크론 팬데믹을 맞이해야 하는 양상이다.

세계 과학계의 2022년 예측을 보면, 영국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변이 코로나와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실제로 임원과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을지, 코로나 백신 생산 증가가 저개발국가의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차세대 코로나 백신도 속속 선보일 전망이다.

선진국의 주요 제약사들이 잇따라 백신을 내놓고 전 세계에서 접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여 견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주요 국가들이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백신 확보를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나라들이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먹는 치료제 확보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쓴 지난 2년간 불평등(不平等)이 심화되었다. 팬데믹 3년 차인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 보급으로 바이러스 자체의 파괴력은 감소하겠지만, 전문가들은 한번 교란된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까지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이에 2022년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본다.

팬데믹 발생 직후 각국 중앙은행

과 정부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생계 보조금 등 현금성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급한 불은 껐다. 이에 재정 부담이 커지고,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망 붕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변했다. 미국은 6.8%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오미크론(omicron) 출현이라는 편치가 더해졌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일 어렵게 시작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즉 단계적 일상 회복 프로그램이 45일 만에 확진자,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으로 인하여 좌초됐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복합 쇼크 상황에서 언제 위드 코로나를 향한 여정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여 사적모임은 4명, 식당 카페 등 영업을 오후 9시로 제한했다. 29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 “선불리 방역 수칙을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거리 두기를 최소 2주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와 정부는 12월 31일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백화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 다른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2차 접종 후 6개월)이 적용된다.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가려면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오는 3월에 도입될 예정이다.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백신을 맞지 못했다면 PCR 음성 확인서나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 확인서 등을 내야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당초 방역 패스는 유흥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됐으나 지난해 12월에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으로 확대됐다. 이젠 면적 300㎡ 이상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에도 추가 적용된다.

오미크론(omicron)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신규 확진자 중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월 20일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73%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12월 1일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뒤 19일 만에 우세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자는 12월 4일 0.7%, 11일 12.6%, 그리고 18일 73.2%까지 급증했다. 영국은 12월 20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9만1743명에 달했으며, 이중 8044명이 오미크론 감염자였다. 오미크론 감염 후 사망자가 14명에 달한다. 런던에서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중 80%가 오미크론 감염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월 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연휴를 맞아 집에 머무르다가 가벼운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 판정을 받았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해 10월 부스터샷(3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며, 의사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감염이 약하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라 5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CDC는 지난 12월 27일 “증상이 없거나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등 증상이 완화 중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여도 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광주에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90대 환자다. 1월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는 1명, 감염 의심 사망자 1명, 위중증 환자는 1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감염자는 111명이 추가돼 총 1,318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돌과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증세가 ‘경증’이라고 설명해 왔으나, 사망 사례가 나오면서 고위험군에게는 ‘감기 같은 약한 변이 바이러스’로 부르기 어려워졌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26)

교회성장을 위한 세가지 영성훈련!

홍향표 목사
사도영성신학

지난시간 이어서...

이 세 가지 영성훈련의 방법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교회성장을 위한 영성훈련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의 영성훈련을 다 실행해야 하며,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 즉, 집중수련 과정 중에 강의중심훈련을 한 다음 소그룹으로 실습중심 훈련을 통해 나눔을 가지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동안 실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영성수련을 하도록 과제를 주고 만나서 이를 확인해 가는 방식의 수련이 있다. 이 훈련방식은 흔히 소그룹의 실습중심훈련 시간 중에 이루어지거나 소그룹과 연관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성훈련 방법을 통해 훈련되어야 할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개인훈련(개별훈련)이다. 영성은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대화하는 훈련이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둘째, 관계성 훈련이다. 개인훈련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이다. 개인훈련은 관계성훈련을 통해서 검증되고 구체화되고 깊어진다. 셋째, 교회 공동체훈련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라는 지체들이 연합한 한 몸이 영성훈련을 받는 것이다. 공동체는 나름대로 독특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영성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편 영성훈련의 주요 내용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다.

다음은 영성훈련을 위한 주요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이다.

1) 거듭남과 성령 : 요한복음서는 독특한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음의 짧은 글로 요약하여 말하였다. “여기에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들로 믿게 하고 또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요 20:31)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는 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가 되다시피 하는 같은 말이다. 요한은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혹시나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체함과 영성생활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

다”(요 6:63) “내가(예수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요 6:63) 요한은 예수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하면서 영과 생명을 밀접하게 연결 짓는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요한은 말하고 있다. 그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때문인 것이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요 3:34)이라고 한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요 4:14). ‘그가 주시는 물은 마시는 그 사람의 속에서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곧 이어서 요한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요 4:23)는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과 관련하여 요한은 말하면서 ‘믿는 사람은 ...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생명을 가리켜 하신 말씀’(요 7:38-39)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명’과 ‘성령’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본다. 이와는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목숨이나 생명’을 가리킬 때에도 ‘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서만 ‘영(프뉴마)를 거두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 ‘목숨’을 ‘프뉴마’(영)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요한이 말하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이나 영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을 갖는다’는 말은 ‘영성생활의 목적에 도달한다’는 말이기도 하며, ‘생명을 누린다’는 말이 곧 ‘영성생활’을 의미하는 것 같이 보인다.

‘생명과 성령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은 거듭나는 생활에 관한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대화 가운데 잘 나타난다. 요한에게 있어서 생명은 ‘거듭나는 체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거듭나는 목표가 생명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거듭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22 번성표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교회(시 107:31)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 6:14~15)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Min):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10-1

☎교회: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pj28638@hanmail.net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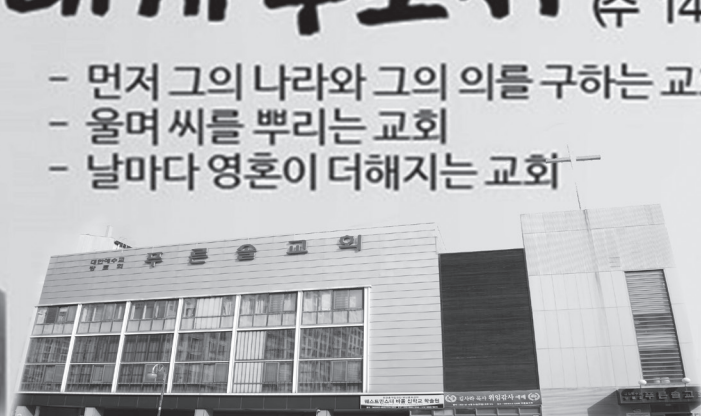
2022
표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 14:12)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 울며 씨를 뿌리는 교회
- 날마다 영혼이 더해지는 교회



원로목사:허창범



담임목사:김사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허창범 담임목사:김사라

광주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영무예디움2차후문앞, 수원중 옆)
TEL: (062) 953-4620 HP: 010-8665-5522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 “NCCK와 함께 사회적 행동할 것”

코로나 진단 맡겼는데 '충격 결과'... 'AI 의사'가 '인간 의사'를 능가할 수 있을지? 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



보수 교단장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가 진보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이홍정 총무)가 공동성명 발표 차원을 넘어 사회적 행동에도 공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6일 오전 11

시 서울 종로 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한국교회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대표회장은 어제(5일) 오전 8시 해와역 승강장에서 23일째 진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주최 기자회견에 NCCK 이홍정 총무와 함께 참석한 사실을 소개하면

길에 함께 할 것"이라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한교총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류 목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출입문에 '한교총 대표회장실'이라는 명패 대신 "새롭게, 이롭게, 바르게"라는 글씨를 써서 붙여 놓으라고 (실무자에게) 했다는 것도 소개하면서 한교총이 사회 속에서 선

이날 신년하례회에서는 명예회장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원로)가 요나서 1장1-10절을 본문으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의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불의"라고 말했다.

또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것은 무질서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한국교회도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하례회는 한창종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김선규 목사, 전계현 목사, 최기학 목사, 김성복 목사, 문수석 목사, 소강석 목사 등 명예회장들이 이 덕담을 건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뉴스파워 김현성 기자

한교연 10일(월) 기독교영화 '아이 스틸 빌리브' 특별시사회 세계적인 CCM 팝 가수 제레미 캠프의 실화 러브스토리 영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기독교영화 “아이 스틸 빌리브(I Still Believe)” 특별시사회를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동대문 굿모닝시티 9층 메가박스 상영관에서 열린다.

한교연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이상호 목사)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시사회는 김훈 장로(기회홍보실장)의 사회로 위원장 이상호 목사의 인사와 배급사 대표 인사, 정

행업 목사(전 대전신학대 총장)의 기도로 진행된다.

‘아이 스틸 빌리브’는 미국 CCM계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도브 어워즈 5회 수상 및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 노미네이트 등의 세계적인 CCM 팝 가수 제레미 캠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CCM 가수를 꿈꾸는 제레미가 아내 걸린 운명의 연인 멜리사를 위해 기적을 노래하는 감동 실화 러브스토리 영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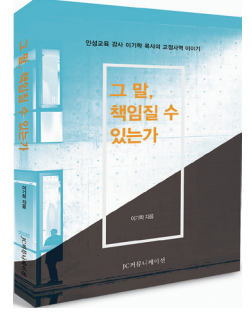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 당시 유명 목회자 등 기독교 인사들의 극찬이 쏟아져 화제가 된 영화다.

앤드류 어윈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월 19일 전국 상영관에서 개봉된다.

한편 한교연 사무처는 특별시사회에 목회자 부부와 청년 찬양사역자 등을 대상으로 100명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으며, 관람을 원하는 분은 한교연 사무처(02-742-0243)로 예약하면 된다.

인성교육 강사 이기학 목사의 교정사역 이야기

부모의 말로 인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수있는 책을 주님의 은혜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정사역을 23여 년을 하면서 사역을 시켜야 한다는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사람. 흉악무도한 범죄를 하고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 폭언으로 자녀의 가슴에 비수를 찔고 그것이 엄청난 죄인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어려서 부모나 어른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장하면서 범죄의 노획되는 사실을 발견



하면서 "그 말! 책임질 수 있나"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의 말에 자녀와 다음세대에 미래가 있음을 한번 생각보았으면 합니다.

자은이이기학/

- 교정사역자 • 경북북부제2교도소 종교위원 및 기독교분과 위원장
- 한국기독교교향목민정착지원협의회 자문위원
- 법무부 교도관기독교연합선교회 지도목사
- 아름다운교백교회 담임목사
- 문의: 010-2980-7400

인기배우 남석훈, 54년만에 조국땅 밟아! [1부]

국민가수, 배우, 감독이 세계적인 화백이 되어 돌아오다



한국이 낳은 천의 얼굴 남석훈(南錫勳),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그리고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한 어릿광대의 몸짓이었나. 전쟁 통의 폐허 속에서도 견디기 힘든 질서와 외면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걸어온 우리들의 역사가 있다. 오랜 해외 생활 끝에 팔순이 넘어가는 나이에도 또 한편의 영화와 하루에도 두 편 이상의 그

림을 그리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는 열정으로 화폭에 화룡점정을 찍고자 혼신을 다했다.

한국이 낳은 천의 얼굴 남석훈(南錫勳), 우리들의 국민가수, 배우, 감독이자 목사인 남석훈 화백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남 화백(목사)은 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이력이 화려하다. 백악

관 국제전상 주치사, 미국 백악관 민주당 한인 대표, 월남 참전 사수 사당전상 국제담당, 피아니스트 연주로 음악치유사역 50년, 영화 주연 150편, 로큰롤 가수로 수천 번 공연, 미국 고신 장로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

세계지구의 날 기념 그림대회 최우수상 수상, 부흥집회 100회 이상, 해병대 141기, 태권도, 합기도 9단, 성령, 브르스리를 배우로 등용 시킨, '칼로 목을 그어도 나쁜 필리피노를 사랑합니다(책나무)' 저자인 목사 이경철(李慶喆, 선교사), 이모션 TPS 최상근(행복디자인) 이사

와 '황금 그릇(예페코)과 해외 달을 그리는 아이들 화집' 작가인 영미(永美) 김연재(金衍材)(미술치료학 박사)가 구로동 소재 국제열린문교회(이연희 목사 시무)에서 남석훈과 자주 만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의 보따리를 풀었다.

배우로서 남석훈 -바다 건너 35년

오직 살아있는 동안 가장 간절했던 그의 소망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선조, 가족도 모두 분단된 조국에서 혹독한 비극을 겪고 살았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큰 꿈을 안고 바다 건너 해외 생활을 해 온지도 어언 54년, 그가 보아 온 예술계 산증인들의 애환과 사실들을 담아내는 남석훈의 자서전이 돋보인다.

“바다 건너 35년- 한국연애사와 그의 생애”와 그의 주름진 애환의 모습을 뛰어넘는 그의 열정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든다. 그의 책은 중심으로 한 스토리와 못 다한 인생 여정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시리즈 영상물이 속히 제작되어 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힘과 위로를 얻게 되길 소망한다.

-홍행 보증수표 남석훈

홍콩 무술 영화에서 활약했던 남석훈은 미국 할리우드에서 영화한 편을 제작 감독한 것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그는 신상옥 감독과 한중 합작으로 수십 편의 주연을 하면서 동남아세아에서도 유명하였다. 그는 죽음의 다섯 손가락에서 주연을 하여 미국에서 흥행 기록을 세웠다.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보다 더 흥행의 기록을 세운 것이다. 남석훈 그가 이번에는 그가 할리우드에서 직접 제작 감독 주연 한 작품을 가지고 귀국한 것이다. 그는 미국에 가서 목사가 되어 기독교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한다. 이번에 국내에 상영을 앞두고 귀국하게 되었다.

다음 작품을 감독할 작품은 월남에서 축구로 유명한 박항서 감독의 활약상을 담은 월남 축구 경기를 하면서 기적 같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박항서의 인간상을 그린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려고 홍콩 무술 영화에서 활약했던 남석훈이 미국 할리우드와 방글라데시에서 영화 한 편을 촬영한다. 그는 해외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외로울 때 수십 년 동안 취미로 그려온 그림들이 미국서 유명하게 되어 이번에 국내에도 그의 그림들이 화제가 되리라 본다.

남석훈은 한국에서 처음 목에 톨가수로 데뷔하여 60여 년간 계속 인기를 유지해 온 최장수의 연예인이다. 그의 그림을 몇 점을 보인다. 이번에 세계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천 명 중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하였다.

피종진 목사 초청 1월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 Bless 3377@gmail.com
T: 02)3411-9191 F: 02)401-7770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 9(주) 오전 서울 임마누엘교회 (장요한 목사) 010-2393-0616
10(월) 오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대표회장 이희수 목사) 010-6392-6904
10(월) 오후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 (ABK) Art robots ethical
11(화) 오후 한국기독교교향로교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대표회장 취임식 (서울한대학교) 지구촌 복음화 기도 운동본부 (총재 남보석 목사)
11(화) 오후 정소 성남주영양교회 (전원관 목사) 010-2445-1691
11(화)-12(수) 한국교회중앙회 (총회장 주희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상그릴라호텔)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 (ABK) graduation trip (제주도 RAMADA PLAZA 제주호텔)
13(목)-15(토) 태안 한마음교회 주회 뉴클로발 부흥사회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7724-1441
22(토) 오후 상주 청리교회 (김재원 목사) 010-9335-3662
23(주) 저녁 오산 주사람교회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62
24(월) 오후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 (ABK) The World of Country music
24(월)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 정진희 목사 총재 정도출 목사)
25(화) 오후 정소 서울신학교 (학장 김준환 목사) 010-7567-8291
28(금) 오전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장대영 목사 010-5309-0091)
30(주) 저녁 서울 열린문교회 (김희철 목사) 010-8633-019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축 새 해

에배의 시간을 문의 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에 전화를 돌려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주안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061-272-4908, 276-1006
남악주안교회 :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60번길 17 전화/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 Site Church

2022년 謹賀新年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목사 : 모정선 박민수 모황민 모성온 전도사 : 추정희 정순말(교육) 시무장로(13인) 협동장로(2인) 은퇴장로(3인) 무임장로(1인)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베트남) 안윤기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 백현주(미얀마) 송영관 최문정(태국) 김미경(아프리카M국) 김경환 송선아(남아공) 강새롬(인도네시아) 전공소아이(베트남다낭)

담임목사 모상련

http://www.mokpojung.com

▶게시특 10장 강해(60)

퍼 놓인 작은 책과 두 증인의 소명-2-

(지난번에 이어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구름으로 옷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으며 두 손에는 퍼 놓인 작은 책이 있으며 그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일곱 우레가 내리는 것을 쓰려고 했으나 인봉시켜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사도요한이 이것을 2천여 년 전에 보기는 보았지만 그 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날에 인접 받은 두 증인들에 대해서 계시해 준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이지요 우리들에게 해당될 것이며 이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깨닫고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최고의 복된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6절: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그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 분께서 자기의 종들이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8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서 있는 그 천사가 손에 퍼 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9절: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10절: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더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11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이뤄지리라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10장 1절입니다. 앞서 10장 1절에서 사도요한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데 ‘힘센 천사’가 보였습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도요한의 신앙은 월등하고, 144,000을 확실히 소화하고 증거 하는 신앙입니다. 실제 144,000은 종말의 주의 재림 직전에 있는 종들이며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신앙으로 앞선 최고의 종들입니다.

열두 사도를 포함한 모든 종들을 놓고 봐도 가장 크고 앞선 종이 144,000입니다.

하지만 사도요한은 종말의 144,000은 아니고 그와 같은 영광의 반열에 드는 종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 힘센 천사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센 천사는 육체 없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가 아니라 두 증인, 즉 144,000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 깨나 잊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10절의 ‘퍼 놓인 작은 책’을 사도요한이 받은 것뿐만 아니라 힘센 천사인 144,000도 먹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퍼 놓인 작은 책을 들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사도요한을 계시기관으로 먹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10장에서 먹은 힘센 천사가 11장의 두 증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퍼 놓인 작은 책을 먹었다는 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마에 인치시기 위하여 퍼 놓인 작은 책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접을 받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소속과 사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상이 일치되어 있음과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임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되어 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 되는 것입니다.

[행 2:17]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증거 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모여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이 바로 아들과 딸들이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젊은이들이 되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며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나타내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오역된 것으로 실제로는 장로로 기록되어 있는데 장로들은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최고의 신앙의 수준에 이른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나라에 속한 일을 하고 하늘의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으며, 부활도 믿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실제 영적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꿈을 깨면 실제로 그 영광을 입고 하늘에서 그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마니즘적으로 환상과 꿈을 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 2:18~21]에는 “또 그 날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

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18절에는 ‘또’라고 하셨는데 이는 17절이 아니라 시점이 바뀐 것입니다. 17절에서의 마지막 날은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때이고, 18절의 또 그 날들은 마지막 날 중 마지막 날인 말세지말(末世之末)인 것입니다.

이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이 남종과 여종이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의 손에 퍼 놓인 작은 책을 입으로 먹고, 위장과 창자로 소화가 되서 배에 쓰게 되면 [계 7:3~4]에 분명히 계시된 이마에 도장 찍혀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퍼 놓인 작은 책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7절의 성령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영들로부터 부여주셔서 일곱 영에 의해 환란 날에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앞의 5~7절의 내용은 힘센 천사들이 친히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환란 날에 144,000으로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퍼 놓인 작은 책을 먹게 되면 그 말씀대로 되어 질 일들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이 100%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 들린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퍼 놓인 작은 책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 이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소화 시켜서 내 속에 역사가 되어 지는 것입니다.

입에는 달고 배 속은 쓰게 되더라: 먼저 이 예언의 비밀은 주의 재림 때의 일과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 그리고 재림 후에 되어 질 일들까지 모두 해당되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사랑의 파노라마입니다.

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 이런 환란과 환란 날의 여러 가지 사건이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이 영광의 결론이 계20장의 첫째부활의 영광이고, 계21장에서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의 영화로운 모습이 보석성과 같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그제 믿어지게 되니 그것이 큰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입에는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겪어야 될 시련과 고통, 순교, 고문이 있기에 그것이 쓰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쓴 것은 잠시요, 그것이 복과 영광을 주려는 것이기에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으며 말씀하신 그 분이 또한 이기에 하므로 이것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퍼놓은 작은 책을 먹은 이후에는 11절에서 다시 예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예언하는 것은 [행2:17]과 같이 영생의 말씀을 은혜시대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임무교대가 되어 예언하는 것과 같이 종들이 바뀌어 예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열매 맺어 영생을 예비하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환란 날이 되면 종들이 바뀝니다. 이미 퍼 놓인 작은 책을 먹은 이마에 인접 받은 자들에게 일곱 영을 부여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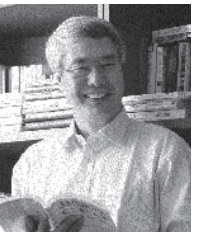
은혜시대에는 성령이 주도함으로 강력한 권세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지만 환란 날에는 적그리스도와 악한 마귀의 세력이 주도하게 되니 하나님이 하라하시기에 그 때에는 이 환란 날의 종들에게 철장권세와 같은 강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이 예언의 권세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성경건강학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1)

함성주 박사
(사랑의클리닉)



나야 가장 고통 받는 암 환자를 보면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나는 18살 소년 순태를 잊지 못한다.

그 소년은 내가 의대교수로 재직할 때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골육종’이라는 병으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 치료를 받았다. 이 병은 우리 나라 중등학생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뼈에 생기는 암이다. 뼈에 생기는 만큼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아직 개발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 소년의 면역상태를 측정해보니 제로였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암 환자를 보아왔지만 면역상태가 그렇게 나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었다. 재발이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못되어 재발했는데 온 뼈에 암이 퍼졌고 엑스레이 상에선 폐가 양쪽 모두 하얗게 나올 정도로 다른 부위에도 전이되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나는 암 환자를 보면서 가끔적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피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여넣는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기적이 불신자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몇 달밖에 안 남았다’는 식으로 사형선고를 내리며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에 대해 가볍게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순태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었다. 당시 나는 사랑의봉사단 제2기를 이끌고 인도, 아프리카를 한 달 동안 다녔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순태가 입원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

당시 그 부모님들은 집사님들이었는데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가 하며.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다 내보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구원의 확신을 시켰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더니 역시 동의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고 했다.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천국 간다”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확실하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한 달 동안 아프리카를 다녀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를 다시 못 볼 것 같다”고 하면서 간절하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굳게 약속을 하고 병실을 나왔다. 그것이 그 아이와의 마지막이 되었다.

축 2022년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담임 이규필 목사
(동신대학 이사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영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 A상가 2층
H.P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한신보수 총회장)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 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고정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視務牧師 서영범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월영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매주 금 오후 03:00, 08:00

담임 마순덕 목사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전길 24
☎(061) 281-1671 010-4630-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담임 장한국 목사
(전대총회장)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화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향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철야 오후 8:00

담임 김관호 목사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0번길 17(심곡동)
H. 010-7788-0091 T.032-612-0190

| **종말, 타작심판 21** |

징조를 보아 알리라 (4) 의복과 약 준비해야

(지난 시간 이어서)

4) 소 때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고 했다.

소 때는 사명자, 집사급으로도 볼 수 있다. 좋은 집사가 여기 좋은 소 때에 해당되었다.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바로 소 때에 해당된다. 그런데 소 때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했다. 그 이유는 곡식이 시들었다고 했다. 말씀이 시들었다고 했다. 소 때에게 필요한 것은 쏘이 있는 초장인데, 초장이 없다는 것이다.

말씀이 없다. 또한 양 때들도 황폐케 되었다고 했다. 일반 신자들이 초장이 없고 쏘이 없으니 황폐케 된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기근이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짐승들은 장로, 집사, 성도, 사도, 또는 일반 신자들로 볼 수 있다.

5)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즉 기도를 했다는 뜻이다.

불(진노, 심판)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고, 화염이 들(세상)의 모든 나무를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즉 진노, 재앙, 환난으로 말씀의 초장을 삼켜버렸으며,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다는 것은 육적인 교회 신자, 육적인 세상의 신자들을 모두 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기근이 타치자 들의 짐승들도 주께 부르짖었다는 것이다. 들의 짐승들은 예서와 같은 자, 육적인 자, 세상 사람들, 이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이다.

왜 위에서 보신대로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강물들이 말랐기 때문에,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물들이 말랐다는 것은 “강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들이 말씀의 강수가 다 말라서 없다는 말씀이다. 이것은 말세에 말씀이 없는 교회가 다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다고 했다.

들은=> “세상” “타락된 교회” “음녀 교회를 말함”

그리고 초장이 즉 말씀이 다 불에 삼켜졌다고 했다. 지금 이 말씀은 요엘 1:17-20절에 있는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과 환난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은 끝장나고 말 것이다. 영적인 것도 망하고, 소때도 망하고, 짐승도 망하고, 높은 자들도, 목사도 다 망한다는 것이다. 장로

나, 집사, 권사도, 평신도도, 다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에는 제사장의 딸들이 통곡한다. 농부의 자식들이 통곡한다. 자기만 못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못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가?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이다.

창 41:45에서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셉의 이름이=? 「사프낏파아네아」 이다. 사프낏파아네아=> 이는 히=> 「세계의 구세주」 그런 뜻이다. 또는 「비밀의 계시자」 라는 뜻이다. 여기서 파라오는 요셉을 하늘이 내리신 인물이요, 세상을 구원하라는 비밀의 계시자로 알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특별히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요셉을 알기 원한다면 요셉의 7년 환난을 깨달아야 한다.

인류의 구세주인 요셉을 모르면 망한다.

아무리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좋은 기름으로 몸에 칠갑을 한다고 해도 세계의 구세주를 모르면 망한다. 이 말씀은 곧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망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인자 예수로 오신다. 인자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원수를 갚으러 오시는데, 인전사정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주께서 사람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두 번째 오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다.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 없다. 인정사정이 없이 질그릇 부숴버리듯이 밟아버린다고 했다. 그때에는 웃도, 약도, 준비치 못한 자들은 이미 틀린 자들이다. 용서란 있을 수 없다.

왜 요셉의 이름이 “사프낏파아네아”인가? 세계의 구세주란 말이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처럼 말씀이 풍성한 때가 언제 있었는가? 없었다.

심지어는 나 같은 죄인도 이 못난 사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먹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의 풍년을 이룬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흉년이 올 것이다. 그 흉년이 올 때, 아플 때는 약이 있어야 한다. 말세에 우리

정기남 목사

편집인



는 두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옷 준비를 잘해야 한다. 또는 약 준비를 잘해야 한다. 말씀 준비, 약 준비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도 없다면, 아니 준비는 했었는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으로 알고, 믿음이 약해지고, 죄악 된 생활에 빠져 있다면 이런 사람은 기름 떨어진 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이 시대의 마지막이 왔음에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신도 올라갈 것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 성경 어느 곳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풍년이 들었을 때, 바로 믿고 바로 서야 하겠는데, 말씀만, 마음껏 받아먹을 뿐이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을 명하여 주신다.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지 않는 자들은 환난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만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한다.

iv. 여름 타작마당 때,

1) 창 30:14 ~ 24절 참고.“깅=자귀 나무” “개=합환채”로 되어 있다. 합환채 이것은 히=> “두다임”이다. 이는 (사랑의 사과) 그런 뜻이다. 그런데 모양이 감자류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합환채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 열매는 약간의 독성이 있고, 뿌리는 인삼과 같다. 그런데 그 합환채를 먹으면 남자에게는 정육제가 되고, 여자에게는 임신축진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루식의 열매는 5월경, 보리 추수할 무렵에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풀인 합환채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가? 「라헬」이다. 성경을 보면 또한 신비스럽다. 라헬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욱의 남편인(야곱)을 언니에게 주고, 라헬은 합환채를 자신이 가졌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요셉”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목양칼럼 29

애굽(세상)에서 광야(육신)로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CTN TV 상임이사



20.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3~6).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허락해 주시으로써(물론 우리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처하는 일들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인 어린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인 장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독약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인해 불순종하여 독약을 먹으려 하는 자녀를 보는 순간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깜짝 놀라 독약을 빼앗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시고자 한다면 독약을 먹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때 독약을 먹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며 불순종한 자신과 그 결과를 원망하며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죽은 자녀를 살려준다면 살아난 자녀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자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자 할 때, 우리가 범죄하고자 할 때 막지 않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실족했을 때,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가 충분한 고통을 느껴며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독생자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이 강권하므로 악을 버리고 선을,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어두움을 버리고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잠 24:16)고 우리가 완전한 넘어짐을 당하여 자신이 죽은 자 같음과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심으로써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참 자녀를 얻으십니다. 완전수인 일곱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범죄해 넘어졌을 때, 환난과 시험을 통해 충분히 받으셔서 근원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아버지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사 119:67).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사 119:71).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원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7.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그렇다면 마가복음 10:17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일 부자 청년이 주님께,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이며”라고 했다면,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선한 선생님으로 보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말씀인데 보고 듣는 우리가 오해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4~5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 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신 같이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기 전의 상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기쁨의 동산, 에덴과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자와 같은 죄인이며 상한 갈대와 꺾여가는 심지와 같은 불쌍한 병든 자임을 깨닫고 이런 자신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거둔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며 영생과 천국을 맛보며 얼마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주님과와 첫사랑을 나눴습니까?

이제 갖 거둔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자신은 주님의 발밑에 엎드려 온유하고 겸손하게 배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신앙의 지식이 쌓이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 성장하면, 어느새 자신의 보좌에 또다시 자신이 앉고 주님은 자신의 발 밑에 모셔 두고, “주님! 이제 쉬세요. 이 정도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하다가 부족하면 그때 주님을 찾을게요. 그때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주님을 종으로 부러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주체가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나, 악을 버리는 일이나 주체는 항상 자신이요 주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잃고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축 2022년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송명화 목사

세계영성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낮예배 :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수요예배 : 오후 7:30,
목요 은사집회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금요찬양 일천번제 : 오후 7:40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91-6번지 4층(심곡로 9번길 28)
h.p 010-3098-7270, Tax 032-653-909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명숙 목사

삼성중앙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낮 예배 : 주일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 오후 7시
매일저녁기도회 : 오후 8시

경기도 안성시 구례골길 213-8 전화 : 010-4087-3468

한국기독교
장로회



담임 오종설 목사

홍성제일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한국기독교
장로회



담임 오종설 목사

평안하고든든한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 1부예배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주일오후 : 저녁 8: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요일심야기도회 저녁 :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40
(토, 주일 개인별 자유롭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51 ☎ 041)631-9146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명호 목사

열두광주리 기도원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교북로 43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혜진 목사

벧엘중앙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포어 :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
금요철야 저녁 8:00
화요일-목요일집회 저녁 7:30

인천광역시 서구 장교개로 366(가좌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장 박선중 목사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능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최낙현 목사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주일에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홍형표 목사

사랑의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국교회총회 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 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 (23), 3동 101호 (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민국을 빛낸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시상식 열어

박정균 목사 사회봉사부문 대상, 류춘배 목사 목회자부문 대상, 정창원 목사 선교부문 대상 수상



▲국내외 연합선교에 함께 하고 있는 (좌측부터) 류춘배 목사, 정창원 목사, 박정균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동년배 심층사 목사로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빛낸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2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박정균 목사, 목회자부문 대상에 류춘배 목사, 선교부문 대상에 정창원 목사,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최고인물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와 한국정치평론가협회가 주관으로 성사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빛낸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에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쉽과 전문성으로 창의와 헌신 봉사로 희생자를 대상으로 정했다. 주최 측은 비전과 역량을 펼치는 인물과 단체의 기여도와 공헌도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 등을 심사해 수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했다. 이날 시상식은 방영수칙을 지키며 초대장을 지참한 수상자와 축하객 1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정균 목사는 인터뷰에서 “미치한 종이 꿈에서도 생각치 못한 귀한 상을 받고 보니, 큰 기쁨보다는 무거운 부담감이 가슴을 짓누른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 양심 앞에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남은 여성 더욱 봉사를 많이 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상인 줄 알고, 더욱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은밀하

게 섬기는, 예수님 닮은 종이 되겠다고 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저의 몇 가지 평생 삶의 모토 가운데, 그중 하나는 행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행 20:35). 하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정균 목사는(웨신교회 직전 총회장, 대전변성교회 담임, 변성장학재단 이사장, CUTS 아시아 아프리카 총장, 칼빈국제학술원 학술총장, 크리에이티브대학교 성경신학 초청교수, 지저스타임즈 부이사장, 언론부흥사협의회 부총재). 또한 박 목사는 2019년에는 웨신교회에서 장한목회자상을 수상받고 2019년 9월부터 웨신교회 제19대, 제20대 총회장을 역임하여 웨신교회 공로상을 수여 받았다.

또한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목회자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류춘배 목사(화성시 정남중앙교회 담임, CUTS 아시아 아프리카 국제캠퍼스 학술총장,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크리에이티브대학교 목회학 초청교수,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는 1985.9.29에 정남중앙교회를 개척하여 37년간 시골교회를 섬기며 중형교회로 성장시켜 농촌교회 성장의 모델이 되게 했으며 개척 때

부터 군선교와 교도소 선교를 실천하여 많은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준 공로로 논산훈련소장과 여러 사단의 사단장 상을 수상했고, 대전교도소를 주 사역지로 하여 충주교도소, 천안교도소에 복음 전하여 세례자를 만들어 교정선교에 공헌하여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목회자부문 대상을 수상한 류춘배 목사(화성정남중앙교회)는 “화성에서 개척하여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아끼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설진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추천을 받아 대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함께 헌신해준 성도님들과 모든 공동체 가족들과 목회자 대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정균 목사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선교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창원 목사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목회자부문 대상을 수상한 류춘배 목사

주경란 칼럼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은 거룩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과정”



주경란 통일선교사 생명나무교회

“...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 고아, 외국인,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양육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속 7:8-9절).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는 전기협(전국비상기독교시민단체총연합회)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단체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국회성벽기도회’가 개최되었다.

‘1부 예배’에 이어 계속된 모임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은 평등법과 가정건강

법,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와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통과시키려는 의도들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것과 또한 부정선거와 잘못된 코로나 백신에 의한 국민적 피해자 숫자(현재 정부 질병청의 공식통계에만 따르더라도 1500여명의 피해자들이 사망된 것으로 집계됨)가 증가되고 있는 것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성경말씀들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문제들이 계속되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담은 정열적인 발언들이 이어졌다.

특히 얼마전까지 직접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몸을 담고 그 실체를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자신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가졌다가 잘못된 코로나 방역 및 백신의 문제점들, 특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짜 백신인줄 알면

서도 밧그릇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적인 일을 무책임하게 계속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행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거기에서 돌아선 전직 간호사 출신 자매님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를 들으면서 짙은 어둠가운데 방황하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과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새벽이 밝기 전 반드시 깊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그러나 새벽은 반드시 온다. 우리는 이 어둠의 때에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또 국가적인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적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지금의 현 상황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잘 대처하는지를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의 터전인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과정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통일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앞으로 낡고 복이 하나되는 과정에 벌어질 많은 혼란들과 문제들도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행하여 잘 헤쳐 나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 세계 최초 기독교 장례의 새 패러다임

김한수박사의부활시리즈
도서주문: 1800-7039

성경적 창조 서비스는 투헤븐선교회 직영 투헤븐상조가 있습니다.
예식(장례) 신청 및 문의 : 1800-7039 (전국 어디서나 행사 가능합니다.)



투헤븐선교회 대표 | 예장웨신 총회장
꿈너머꿈교회 담임 김한수 목사
(010-7667-4719)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성경적 천국 환송	천국환송예식서	BIBLICAL~	예수부활의 15가지
기독교장례, 이대로 좋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이브라 실례: 천국환송예식교본 김한수 지음	기독교 장례의 새 패러다임 김한수 지음	부활실천신학 천국환송예식서 김한수 지음	BIBLICAL~ 성경적 천국 환송 New Paradigm of Christian Funeral / 기독교 장례의 패러다임 Practical Theology of Resurrection / 부활실천신학 Kim, Han-soo Illustrated by: Minhyun Kim	부활실천신학 · 생명의 복음 예수 부활의 15가지 비밀 김한수 지음
기독교장례 이대로 좋은가	부활에 근거한 용어 및 용품 매뉴얼	초교파 목회자용 전용 예식서	전 세계인을 부활의 복음으로 묶는 필독서	부활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찾아낸 필독서

투헤븐선교회 직영 투헤븐상조 : 기독교 천국환송예식 전문
www.투헤븐.com 네이버.구글. '투헤븐상조' 검색 유튜브 투헤븐TV
사전가입, 예식행사 상담 및 문의 : 투헤븐선교회 최현정 국장 1800-7039

성령의 바람! 찬송의 열풍이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로!

목회자찬양(제1회)경연대회 대성황 이뤄!
대상 1등 배정희 목사, 2등 우사랑 목사, 3등 김천국 목사



대회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라도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대상 16:36)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이다”(시 66:2)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이다”(시 150:4) 아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세계는 물론 전국이 핏퐁 얼어붙었고, 교회마저도 신앙까지 얼어붙은 이 시점에서 인천영광교회(조강수 목사)에서 지난 12

월 24일(금) 저녁 7시 성탄절 전야에 목회자찬양경연대회가 개최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1부 성탄감사에 배를 드린 후 2부로 찬양경연대회가 시작되어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목회자들의 예술적인 감각과 찬양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마치는 시간까지 열광의 도가니가 따로 없었다.

이날 이선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찬양경연대회는 성령이 임하신 밤이었으며 각자가 부른 열창으로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제1회 목회자찬양경연대회 시작부터 열기가 대단했기에 이를 기점으로 찬양경연대회가 2회, 3회로 이어진다면 전국교회로 확산될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믿음으로 장담해서 전국 목회자찬양경연대회는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진다. 대회장 조강수 목사도 전국 목회자찬양경연대회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며 이 일을 계획해 두었다고 말한다.

찬양경연대회 시작부터가 정말 뜨거웠다. 이 열창이라면 얼어붙었던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몰아내는 찬송의 감동적인 이 열풍이 인천영광교회를 시작으로 전국교회를 불

태우는 성령의 역사가 용강처럼 불붙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전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질병이 없는 나라, 코로나19, 팬데믹을 모르는 축복의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양복을 벗어주고, 봉고차를 기증한다는 강사 조강수 목사

이번 목회자찬양경연대회는 인천영광교회(조강수 목사)가 주최하고 대회장은 본교회 조강수 목사가 맡았으며 총괄 진행했다.

조 목사는 인터뷰에서 목회자초청후원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가는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으며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조강수 목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흥집회를 초청받고 가면 그 교회의 형편을 보여 주시고 알게 하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임고 있던 양복도 벗어주었고, 때로는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봉고차를 구입하여 그 교회에 기증하라 하시면 즉시 순종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조 목사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잠 11:25)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묻고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또 있느냐고 한다. 기차도 들어도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따로 없다는 존경심이 든다.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조강수 목사는 쌀과 라면 선교현금을 수 많은 교회에 전달했으며, 심지어 교회의 월세를 해결하지 못한 목회자, 어려워서 직접 찾아온 목회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있

다고 말한다.

이날 영광교회 권사회 일동은 특별 찬양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을 열창하며 울동을 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등 분위기를 한껏 띄우며 뜨겁게 몰아갔다.

구제와 선교현금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조강수 목사

기자(지저스타임즈 / CJTN TV방송)가 만나본 조강수 목사는 많은 구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도 3분의 2가 출석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다.

조 목사 또한 자가용이 없어서 대중교통 버스타 지하철을 이용한 지 벌써 오래 되었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녁에 골강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기도원으로 올라가 밤새 기도를 드린 후 화요일에 하산하여 주말까지 매일같이 기도회를 갖는다.

오로지 기도 외에는 모르고 산다. 누군가가 자가용을 구입해 드린다고 하면 현찰로 달라고 한다. 자가용 살 돈이면 개척교회 어려운 목회자나 노숙인들을 돕겠다는 것이 조 목사의 목회관인 구제에 있다.

조강수 목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국목회자초청후원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아울러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따라서 영광교회는 매주 금요일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쌀 4kg 1포씩, 라면, 때로는 추첨을 통해 현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영광교회 성도 1인당 70원을 선정 10만 원씩 선교해 나간다는 방침을 두고 기도에 들어갔다. 현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전국목회자초청 후원예배 및 세미나는 계속되고 있다.

구제와 선교활동은 재직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있다.

영광교회는 정명하 장로를 비롯, 권사

회, 안수집사회,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조강수 목사와 뜻을 같이하여 허리를 동이고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전국목회자초청 후원 및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친절하게 살피면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높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목회자초청 후원회는 회장 최건숙 목사(백합중앙교회), 배정희 목사(인천민음교회), 우사랑 목사(참복된교회), 사무총장 이선한 목사(영광교회) 등이 임원들과 함께 자원봉사에 힘을 쓰고 있으며, 본 영광교회 헬스바 찬양단과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들이 좋았다.

이번 목회자찬양경연대회는 14명의 목회자가 본선에 올라 이날 대상은 1등 배정희 목사가 상금 50만 원을, 2등 우사랑 목사가 상금 30만 원을, 3등 김천국 목사가 상금 20만 원을 수상했다.

또한 최고의 대상인 냉장고는 추첨을 통해 부평에 살고 있는 모 자매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 전기밥통과 푸짐한 선물들은 추첨을 통해 참석자 전원에게 크고 작은 선물 등으로 시상을 가졌다. 끝으로 성탄절을 기념하여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른 후 대회장 조강수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CJT TV)에서는 이날 녹화된 영상을 편집 방송되고 있다.

홈피 / <http://jntv.kr> 및 <http://cpjkr>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조강수 목사의 매주 설교와 세미나는 녹화되어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다. 많은 구독과 추천으로 동참해 주시면 한다.



축 2022년 근하신년 매주 금요일 오후 2~4까지 [쌀 나눔 행사]

전국목회자 초청 후원예배

제39차 영성세미나

강사 :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며 놀라지 말라 네 두려워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교통편>

28번 버스
한신휴아파트
정류장 하차

28-1 버스
한신휴아파트
정류장 하차

3-2 버스
범양아파트
정류장 하차

24-1 버스
코스모스
아파트 하차

<지하철 이용>

동암역에서 - 593
마을버스 승차 -
범양아파트 하차
(증점)

백운역에서 - 566
마을버스 승차 -
범양상가 정류장
하차(증점)

인천영광교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구.가좌동) 전화 : 032-577-1225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칼럼리스트

제목: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3:14 찬송가 254장

그러므로 혹은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위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앞에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삶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원어의 의미는 대리석과 같이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의 씨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허망한 행동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제목: 다시 찾아오라 2
성경: 에베소서 4:17~24 찬송가 191장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시107:20). 말씀 듣는 것이 복입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설교인데 내 마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굳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준 권한을 던져버립니다. 방임은 나에게 준 임무(사명)와 책임, 권리를 나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권한을 던져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었는데 마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던져버리지 맙시다. 다시 찾

아와야 합니다. 방임하면 모든 두려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음란과 방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목: 하나님의 열심
성경: 이사야 9:1~7 찬송가 22장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종은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압제자의 멍에를 깨뜨리고 무서운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그 백성에게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아기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온유와 겸손, 자기희생으로 악의 세력을 무장 해제하시고 그 백성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제목: 범죄의 요인은?
성경: 시편 106:21~29 찬송가 274장

성경에서 범죄란 목표(하나님)를 잃고 올바른 길(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주를 잊어 버렸을 경우는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렐 18:20). 한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신 말씀(호 6:3)을 무시하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악한 자들을 내버려두시는 데 그 이유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의한 자는 천국을 받지 못합니다(고전 6:14~18). 그러니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과감히 끊는(딤후 2:19)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돌아오라!
성경: 시편 106:44~48 찬송가 421장

시인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의 압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 습니다(사 43:7). 하나님께서는 돌아오

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때는 온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쇠뿔장을 꺾으시는 하나님!
성경: 시편 107:13~16 찬송가 395장

‘궁홀’(라함)이란 모태에 아이를 품은 어머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를 보호하듯 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아이를 위해 보호하는 사랑이 바로 ‘궁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를 통해 그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고난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회개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박하던 쇠사슬도 끊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바로 감사입니다. 찬송입니다. 늦문을 깨뜨리시며 쇠뿔장을 꺾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 시편 108:1~6 찬송가 21장

하나님의 ‘인자하심’(헤세드)은 죄인들을 향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행위언약을 어긴 죄인들은 벌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지만, 궁홀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더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으면 실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간증과 찬송은 개인을 넘어 온 세상에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며!
성경: 시편 109:1~6 찬송가 274장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시인은 거친 감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2절의 표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악한 임과 거짓된 입을 열어 시인을 속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이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을 그 사랑을 원수로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을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고난의 유익!
성경: 시편 109:21~31 찬송가 339장

성도의 고난은 세 방면에서 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히 12:6), 자연 재해 등에 의해서 생기는 고난(막 4:38)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허락하는 고난(욥 23:10)이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주의 율례를 배우기도 합니다. 시인은 석양의 그림자 같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시인의 호소는 마치 가룟 유다에 의해 대제사장과 로마 군사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줄 것을 소망하고 힘을 내는 복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의 권능의 날에!
성경: 시편 110:1~7 찬송가 80장

시편 110편은 미래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쓴 예언시입니다. 다윗은 미래의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신은 그의 신하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미래에 오실 메시아 앞에 엎드려 신하의 예를 표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다시 오실 메시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주의 오른쪽에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전쟁의 극한 어려움 가운데 메시아는 시냇물을 마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은 메시아는 모든 대적을 멸하실 최후의 승자가 되십니다. 이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
성경: 시편 112:1~10 찬송가 351장

주를 ‘경외하는’(아레) 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엢 1:4~5),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엢 2:8) 하나님을 알고(시 100:3)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성도입니다(고후 13:5).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삶을 살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에게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 주를 경외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출애굽의 하나님!
성경: 시편 114:1~8 찬송가 376장

지만 정부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라이언로켓 경영전략팀 박준선 팀장은 “기존 TTS는 사람이 발화 했을 때 음성성을 녹음 후 컴퓨터가 조합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말을 흉내냈다면, 지금은 딥러닝 기반의 음성 생성 기술로 인간의 발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그 텍스트에 따른 발음을 정확하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생성해 내는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매체의 활용 범위를 넘어 교육이나 복지 등 분야의 범위도 확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고, 교회들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시편 114편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일을 주제로 한 서사시입니다. 특히 유월절에 부르기 위해서 출애굽 때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통한 창조의 완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제목: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 시편 116:1~6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가 계시고(히 11:6), 그가 영원토록 그의 만드신 세계에서 섭리하시며(요 5:17), 그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시 65:2). 성도는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를 경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혼신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면 궁홀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선교에도 AI 활용된다…라이언로켓-GOODTV 기술 협력 구축

인공지능이 사람의 입을 대신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최근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이 현실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활용매체도 다양해 기술의 발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이 시작하기 전인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다소 어색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학습하면서 정교해지는 이른바 ‘딥러닝’ 기술로 인해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

스타트업 라이언로켓(대표 정승환)은 AI TTS(텍스트 스피치) 전문 개발 기업이다. 설립한 지 만 3년에 불과하

지만 정부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라이언로켓 경영전략팀 박준선 팀장은 “기존 TTS는 사람이 발화 했을 때 음성성을 녹음 후 컴퓨터가 조합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말을 흉내냈다면, 지금은 딥러닝 기반의 음성 생성 기술로 인간의 발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그 텍스트에 따른 발음을 정확하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생성해 내는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매체의 활용 범위를 넘어 교육이나 복지 등 분야의 범위도 확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고, 교회들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라이언로켓은 GOODTV(대표이사 김명전)와 23일 AI TTS 기술 사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미디어선교에 협력을 추진한다. 또 이를 통해 GOODTV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GOODTV 콘텐츠서비스팀 권오섭 팀장은 “기존에는 GOODTV가 생산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예산, 에너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었지만 라이언로켓의 기술로 많이 줄일 수 있게 됐다”며 “GOODTV의 콘텐츠가 더 빠르고, 많이 성도들을 찾아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

2022년하반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포어 :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복음으로 세계를 품는 예복교회의 선교사명
Global Yebok

주일예배	대예배	1부:오전930 2부:오전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7시
	유치부	오전11시
	주일학교	오전11시
	청년대학부	오후2시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오후230분
		수요일 오후8시
		금요일 오후10시
심야기도회		토요일 오후10시
		매일 오후10시 단,주일과수요일은제외



소진우 목사 사역
지저스타임즈 신문 사장
Cjtn tv 방송 사장
C jtn tv 가정예배 칼럼리스트
한국언론부흥사협의회 명예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Good TV 칼럼리스트



담임목사 소진우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Tel. 02)934-1232

DREAM CHURCH

꿈을 잃은 자들에게 꿈을 주며
꿈을 가진 자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꿈의교회

祝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꿈 의 교 회

DREAMS COME TRUE

www.mokpodream.org

담임목사 이요셉

예배 안내
 주일 1부예배(일) 오전 7시30분 주일 2부예배(일) 오전 11시
 주일밤예배(일) 저녁 7시30분 삼일밤예배(수)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금) 저녁 9시

주소 : 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 : 061)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00번

축 2022년 근하신년 경찰청·한국경목총회 임원일동

총회장	명예총회장	총 장	2회 총회장	3회 총회장	34회 총회장	35회 총회장	36회 총회장	37회 총회장	38회 총회장	41회 총회장	고 분	수석 부회장	연로 대표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이창식목사	김종순목사	홍형표목사	조종복목사	염신영목사	허 식목사	이상재목사	김진수목사	최현기목사	박종식목사	권대원목사	전현호목사	정기남목사	김창영목사	성상모목사	김영광목사	남기우목사	이기영목사	
특수이사	특수이사	행정국장	중앙위원	김관수목사	조남익목사	유영진목사	전대우목사	윤도원목사	김남서목사	배종문목사	이재우목사	정기철목사	양영우목사	배종수목사	홍영우목사	홍진우목사	홍진우목사	공민우목사
배경삼위원	김종선위원	김성준위원	김광현목사															

표어 : 대한민국 14만 3천(경찰 13만 해양경찰 1만 3천)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위원
정창근목사	최규동목사	김민재목사	노승환목사	차재호목사	박명진목사	박주원목사	서희석목사	김순필목사	신정호목사	정지광목사	김영우목사	정철호목사	이경재목사	양현우목사	박관영목사	양대석목사	이수학목사	김현우목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후원이사
고영기위원	이기범위원	양기수위원	하정우위원	이정수위원	김광우위원	조남익위원	장영준위원	윤정우위원	박승원위원	이성환위원	장기우위원	이성일위원	유영원위원	장기우위원	김민우위원	010-7288-2500(사무국) 공세현 대표		

한국경목총회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나길. (사랑의교회/사도영성산학원) 총장 : 홍형표 목사 010-7585-1955, http://www.gapck.or.kr 홈페이지 한국경목총회

축 2022년 근하신년 예정합동(보수) 임원일동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시 128:2]

증경 총회장	직전 총회장	총 회 장	부총회장	서 기	부 서 기	회의록서기	부회의록서기	회 계	부 회 계	총 무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서동기 목사 소망교회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정요한 목사 현동교회	서재식 목사 중성교회	전종록 목사 연약교회	김주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배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강대섭 장로 평안교회	박용순 목사 화목교회

본 교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같이 할 목회자,
교단, 노회, 기관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예정합동보수 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 규필 목사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 02)854-1326, Fax 02)496-0181 H.P 010-7474-3173